

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 현황과 정책금융 역할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은 1956년 설립된 사회개발은행으로 유럽 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사회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, 보증,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금융 지원
 - 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체조달 자금과 EU 등으로부터의 재원을 일부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 촉진, 취약계층 지원,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
- ◆ 저출산·고령화, 지역 불균형, 기후변화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성장 지원에서 나아가,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

□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,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)은 '56년 설립된 사회개발은행으로 현재 유럽 41개국이 참여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국가난민 및 인구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8개국이 설립한 재정착기금*이 시초이며, '99년 CEB로 명칭을 변경
 - * Council of Europe Resettlement Fund for National Refugees and Over-Population
 - 이후 주택, 직업, 교육 등으로 지원분야가 점차 확대되었으며, 현재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이 주된 역할
 - 프랑스(16.735%), 독일(좌동), 이탈리아(좌동), 스페인(10.914%), 터키(7.096%) 등 유럽 41개국이 지분을 보유
 - 초국가기구로 금융규제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
- 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, EU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다양한 기금도 일부 활용
 - 우량 신용등급(Fitch AA+/S&P AAA/Moody's Aa1)을 바탕으로 '19년중 45.2억 유로의 채권 발행, 통화별 비중('18년)은 유로화 73.3%, 달러화 16.4%, 파운드화 9.4%
 - EU, CEB 회원국, EIB(유럽투자은행)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1.7억유로 규모의 26개 신탁기금을 운영, '18년중에는 약 4,100만유로의 기금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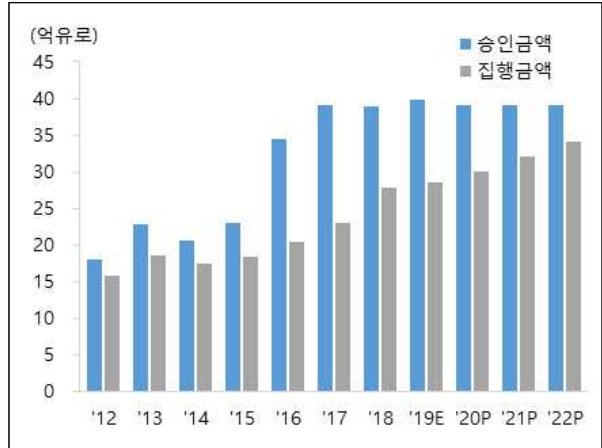
CEB의 주요 재무현황

(단위 : 백만유로)

구분	'18년말	'19.6월말
총자산	24,348	29,406
대출자산	18,401	22,850
총부채	21,325	26,377
회사채	19,557	24,389
총자기자본	3,023	3,029
이자이익	149	78
순이익	97	53

주 : 이익은 각각 '18년 연간, '19년 상반기 기준
 자료 : CEB

CEB의 대출 추이 및 계획



주 : '19년은 감사전 기준, '20~'22년은 계획치
 자료 : CEB

□ 회원국의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 대출, 보증,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금융 지원하고 있으며, 지분 투자는 내규상 금지

- '17~'19년중 연평균 39억유로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집행액은 평균 26억유로이며, '20~'22년중에는 연평균 32억유로를 집행할 계획
 -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*하고 있으며, 금융기관에 온렌딩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수요자의 금융지원 접근성 제고
 - * 지방정부 프로젝트 지원 비중은 '15년 31%에서 '18년 41%로 증가(승인액 기준)
 - 터키, 폴란드, 루마니아, 헝가리 등 유럽 중부·동부·남동부에 소재한 22개국을 집중 지원 대상국*으로 분류하여, '00년대 이후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
 - * 22개국의 지분은 17%에 불과하나, 동 지역 지원 비중은 66%('18년 위험가중자산 기준)
- 주로 은행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서 마련하는 SDA(Social Dividend Account)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분야에 보증 및 보조금 지원
 - 형태는 이자 보조, 리스크가 높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보증, 프로젝트 전반에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, 보조금 등의 네 가지로 구분
 - '19.6월말 SDA 규모는 5,034만유로로, 네 가지 지원형태별로 할당된 비중은 각각 43.8%, 38.7%, 13.6%, 3.8% 순

□ CEB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(Social Mandate)을 위해 ① 포용적 성장 촉진, ② 취약계층 지원, ③ 지속가능한 환경 도모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

-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는 경제적 기회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촉진을 지원
 - 세부적으로는 주거, 복지, 보건, 교육, 노동시장, MSMEs(Micro, Small and Medium Enterprises) 등이 주요 지원대상
- 젠더, 청년, 노숙자, 장애인, 이민자, 난민 등의 쟁점과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
 -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소,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긴급지원*부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까지 전개
 - * CEB와 회원국, EIB가 출자하여 설립한 이주민 및 난민지원 기금인 MRF(Migrant and Refugee Fund)를 통해 보조금 등 긴급지원
- 온실가스 배출 감소, 에너지 및 천연자원 사용 효율성 개선,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

□ CEB의 사업영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

- 앞서 보았듯이 CEB의 주요 역할은 유럽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
 -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KfW, DBJ 등 주요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, 지역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
- 저출산·고령화, 지역 불균형, 기후변화 등 유사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향후 사회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